34과 아간의 범죄 - 우호철 목사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 된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또 저희에게 어린 영혼들 맡겨주셔서 그 어린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교사로 저희들 불러 사용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으로서 우리 선생님들 각 사람 각 사람 더욱 주님 말씀에 합당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주님 말씀 앞에 모여 앉은 우리 교사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더욱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앞에 실제 성경 말씀 배운 것을 행함으로 증거 하는 사람들로 남은, 남은 생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주님 말씀 상고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말씀 가운데 더욱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마음을 주님 주신 은혜로 가득 채우고 돌아 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머릿돌 공과 33과 아간의 범죄에 대해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경 여호수아 7장을 찾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Pero los hijos de Israel cometieron una prevaricación en cuanto al anatema;

porque Acán hijo de Carmi, hijo de Zabdi, hijo de Zera, de la tribu de Judá, tomó del anatema; y la ira de Jehová se encendió contra los hijos de Israel.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 할 내용은 아간의 범죄와 그리고 실제 아이성의 정복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을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 하였으니

실제 행동으로 옮겼던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범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그래서 그 결과가 아이성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는 패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민족 전체가 괴롭게 되는 그런 사실로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 할 내용들 좀 살펴보면 죄는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다 드러나게 돼 있고 그리고 이 아간이 범죄 한 이후에 그 것이 드러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민족적인 고통과 괴로움이 나타나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아간은 끝까지 죄를 숨기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이 공과를 단순히 아이들에게 지식 전달의 차원에서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사들 우리 선생님들의 개인의 삶에도 적용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공과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아간은, 이 아간의 이름의 뜻은요 곤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는 여호수아서에는 아간이다 라고 나오지만 역대상 2장에 보면 아갈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것은 괴롭게 하는 자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등장했던 아간은 곤란이었지만 죄를 범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이 아간을 심판하시고 아간과 아간 가족을 심판하신 이후에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자로 계속 남게 되었습니다.

아간이 범죄 했던 상황을 좀 살펴보면 지금 여리고성에 도착했던 지난주에 우리 함께 공부 했잖아요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그들은 행함으

로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까지 도착, 여리고성에 도착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행보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계속 눈으로 보는 그리고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오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계속 승승장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독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 하게 되죠.

이 아간이 범죄 했던 아간이 범죄 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여리고성의 여리고성에서 얻게 되어 지는 노획물들은 다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졌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간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그리고 은 20세겔과 또 금덩이 하나를 훔쳐다가 자기 장막에 갖다가 숨겨두었죠

아간이 훔친 것은 표면적으로는 외투와 은덩이 금덩이 하나씩이었지만 실제 아간이 훔친 것은 표면적인 것은 보물을 훔쳤지만 실제 훔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훔친 거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 아간의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죄였고

두 번째는 군대장관,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을 통솔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땅으로 인도하고 있는 가나안을 그들과 함께 정복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장관인 여호수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인솔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 군대장관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금방 이해하셔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군대에서요 그것도 전시에 사령관의 명령을 거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건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형입니다.

이 아간이 했던 일이 바로 그것이었죠.

이 아간이 범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간의 범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게 됐던 그 현상은 나타난 영향은 개인에게만 국한되어지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간이 범죄 했던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죄와 그리고 그들, 그를 통솔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솔하고 있는 여호수아에 대한 불순종이 이 아간의 범죄였다고 생각 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물질적인 탐욕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여호수아에 대한 불순종이 아간을 결국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멸망하게 만드는 그런 근본적인 죄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순종의 죄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한 영향은 여호수아 2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하므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었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 뿐이 아니었느니라
¿No cometió Acán hijo de Zera prevaricación en el anatema, y vino ira sobre toda la congregación de Israel? Y aquel hombre no pereció solo en su iniquidad

이건요 우리 각자에게도 정말 교훈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의 영향은 한 사람에게 국한 되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죄는 문둥병 같다, 또 그리고 화전 같다 여러 말씀으로 죄를 표현하고 있는데, 죄는 번져나갑니다.

누룩 같습니다.

퍼져나갑니다.

전염됩니다.

아간이 했던 그 죄의 영향도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걸 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간이 범죄 했는데 왜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 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이미 그렇게 하시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을 찾아보죠

여호수아 6장 18절

지금 여호수아 6장 18절에는 아직 성이, 성이 지금 함락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또 같이 읽어 볼까요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18 para que vosotros os apartéis hoy de seguir a Jehová? Vosotros os rebeláis hoy contra Jehová, y mañana se airará él contra toda la congregación de Israel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진 물건들

생명을 갖고 있었던 것은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바쳐 졌습니다.

그리고 금, 은, 동, 철 각종 금속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여호와의 곳간으로 들임으로써 하나님께 바쳐졌던 겁니다.

하나님께로 바쳐져야지 될 물건을 하나님께 바쳐, 바쳐진 물건을 이걸 자기 것으로 만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훔친 것 그것은 이스라엘 진으로 바쳐지게 된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담대히 이를 행합니다.

순간 표면적인 그런 유혹이나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화려함들로 아간은, 만일 아간이 그런 범죄를 행한 이후에 그가 받게 되어 질 그 결과를 미리 보게 되었더라면 보여 지는 아름다운 시날산의 외투?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은덩이, 금덩이 그것이 자기 가족들과 자기의 삶과 자기의 생애 전반을 전체를 바꾸는 것으로 그만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미리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를 미리 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결과를 미리 보라는 얘기입니다.

결과를 미리 보게 되면 그러면 순간의 그 화려함과 그 유혹도 견디어 나가고 넘

어갈 수 있습니다.

아간이 보지 못했던 것은 보여 지는 표면적인 것은 보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예는 많이 있습니다.

민수기에도 보면 시므리가 음행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염병으로 징계를 하시죠?

그때 죽은 사람들이 2만 4천명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에게 그 결과가 하나님이 징계하셨던 그런 일들이 성경에 곳곳에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그렇죠?

하다못해 다윗이 인구 조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7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의 범죄 함이 많은 사람에게 아주 혹독한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우리 각자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정복하기 전부터 나는 저기 들어가면 뭐하나 좀 챙겨야지 그런 말은 성경에 없으니깐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지난주에 우리 공부할 때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말씀대로 다 준행하고 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위치에 아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아간도 행했습니다.

정복하기 전까진 그랬습니다.

그러나 정복하고 나서 함락되고 난 이후에 그 눈앞에 펼쳐져있는 그런 물질들로 말미암아 마음을 뺏겨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간의 범죄 함이 잘 생각해보면 아간이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난 다음에 그때 훔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걸 자기 장막에 갖다 숨겼어요 그런데 바로 발각이 됐어요?

범행을 한 시점과 그것이 발각되어지는 시점 사이에는 시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단 아이성을 한 번 공격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36명의 전사자가 났어요

3천명은 후퇴 당했고

쫓겨 왔고

시간의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요 돌이킬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회개할 수 있던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죄를 하나님이 들춰내시기까지 숨기게 숨기고 있습니다.

그죠?

이 아간이 범죄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받게 되어 진 그 놀라운 충격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5절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의 삼십 륙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Y los de Hai mataron de ellos a unos treinta y seis hombres, y los siguieron desde la puerta hasta Sebarim, y los derrotaron en la bajada; por lo cual el corazón del pueblo desfalleció y vino a ser como agua.

나머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 같이 된지라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돼 버렸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그 전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에 살았던 사람들이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기억하셔요?

우리 마음이 녹았다고.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고 너희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계속 여기 요단강 건너고 하는 일들 우리가 다 들었노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녹았다고

그런데 그런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끔 만드는 장본인이 아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녹아 내렸어요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그리고 그들 가운데 승리를 계속 맛보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서 완전히 녹아내리는 좌절하고 그리고 아주 패배한 그 괴로움으로 가득 차게 만든 사람이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한사람의 죄의 결과가 이런 엄청난 일을 만들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사람 아간의 범죄 함이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엄청난 결과를 가 갖고 오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이걸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에 또 보면

패하고 나서 돌아온 이후에, 패하고 돌아온 이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11절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Israel ha pecado, y aun han quebrantado mi pacto que yo les mandé; y también han tomado del anatema, y hasta han hurtado, han mentido, y aun lo han guardado entre sus enseres.

(12)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Por esto los hijos de Israel no podrán hacer frente a sus enemigos, sino que delante de sus enemigos volverán la espalda, por cuanto han venido a ser anatema; ni estaré más con vosotros, si no destruyereis el anatema de en medio de vosotros.

이건요 죄를 가지고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가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겠노라

죄가 있으면 그 죄를요 버리고 가는 거예요

회개는, 회개는 죄의 자각과 그리고 그것을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간은 자각하지도 못했고 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는 겁니다.

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어제 3차 끝나고 왔잖아요?

그런데 어제 오는 길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차 전쟁 끝났습니다. 이제 4차 한 번 남았습니다.”

전쟁입니다 실제

전쟁이에요

그것도 아주 격렬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지금 아이성이라는 정복해야지 될 대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가르치는 교사로 또 구원받은,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실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반드시 들어납니다.

잠언 2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Espinos y lazos hay en el camino del perverso;
El que guarda su alma se alejará de ellos.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죄를 가지고서는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드러내십니다.

그러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얼른 돌이켜야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구원, 구원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로 받았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삽니다.

은혜위에 은혜라

그리고 그 은혜를 더욱 더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더욱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마음은 은혜로써 굳게 함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아 가면 그리스도인의 마음 또한 더욱더 견고해 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모습도 자기의 각오도 더욱 견고해 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아 갈 때 입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습니다.

자꾸 걸리는 게 있어요.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합니다.

자꾸 버려요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숨은 허물에서도 벗어나게 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데 여호수아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죄를 드러내실 때 이렇게 하셨어요.

14절

여호수아 7장 14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4절

자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의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의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Levántate, santifica al pueblo, y di: Santificaos para mañana; porque Jehová el Dios de Israel dice así: Anatema hay en medio de ti, Israel; no podrás hacer frente a tus enemigos, hasta que hayáis quitado el anatema de en medio de vosotros.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4)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Os acercaréis, pues, mañana por vuestras tribus; y la tribu que Jehová tomare, se acercará por sus familias; y la familia que Jehová tomare, se acercará por sus casas; y la casa que Jehová tomare, se acercará por los varones;

네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방법이 어째요?

제비뽑는데요, 이 제비 뽑아서 이 제비뽑아 나오는 것이 이게 여호와께 뽑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아내시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아니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많은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리고 그 가운데 지파가 뽑혀 나오고 족속이 뽑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족이 뽑혀 나와요

거기 뽑혀 나오는 사람들은 이미 압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요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느 지파가 뽑혀 나와요?

유다지파가

아니 유다지파 가운데?

그리고 또 그리고 유다족속이 나오고 그리고 세라족속이 뽑혔고 그중에 삽디가 뽑혔어요.

가족이 다 앞으로 나오는데요, 그건요 그들에게 있어서 충격이에요

그 가족들과 그 지파와 그 족속들은 아니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족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